

LGD, OLED 투자 가속도... 中 은행과 3.2兆 론 체결

(LG디스플레이)

(신디케이트)

중소기업 단신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중소사랑나눔재단에 성금 6695만원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지난 5일 개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조합 회원사와 조합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6695만원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인레미콘조합은 2016년(3500만원), 2017년(6450만원)에도 기부를 하는 등 올해로 3년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배준용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왼쪽)과 박성택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중국 광저우 OLED 생산법인 건설·설비 등 투자 자금 확보

LG디스플레이가 중국건설은행, 중국교통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200억 위안(약 3조 20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계약을 체결했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에서 LG디스플레이 CFO 김상돈 부사장을 비롯해 중국건설은행 광저우시 은행장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OLED 생산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디케이트론 계약으로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OLED 생산법인은



LG디스플레이 CFO 김상돈 부사장이(우측에서 여섯번째)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은행으로부터 광저우 OLED 생산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디케이트론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건설 및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중국 현지 은행으로부터 8년간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상돈 LG디스플레이 CFO 부사장은 "이번 계약의 성사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역시 OLED의 미래에 대한 전

망이 밝다는 방증"이라며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OLED 생산법인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대형 OLED의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OLED TV용 패널 수요는 2020년에 700만대, 이후에는 1000만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OLED TV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중국 광저우에 8.5세대 OLED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LG디스플레이와 광저우개발구가 각각 70:30의 비율로 투자했다. 자본금 2조6000억원을 비롯해 총 투자 규모는 약 5조원이다.

현재 8.5세대 OLED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2019년 하반기에 양산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여성이 뽑은 좋은 기업’ 귀뚜라미, 18년연속 선정

귀뚜라미는 ‘상호 존중하는 좋은 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여성이 뽑은 좋은 기업’ 부문에 18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여성이 뽑은 좋은기업’은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 확산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기업을 여성의 관점에서 평가해 선정한다. 행사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등이 후원한다.

심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분야별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귀뚜라미는 올해 KT 기가지니를 이용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제어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우리나라 보일러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또 보일러, 지진감지기, 가스누출탐지기, 분배기, 각방 제어기로 구성된 ‘귀뚜라미보일러 세트’를 통해 ‘편의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새로운 난방 솔루션을 선보이며 여성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다. /김승호 기자

유한킴벌리 ‘요양시설용 돌봄 기저귀’

유한킴벌리는 요양시설용 돌봄 제품 ‘디펜드 골든프렌즈’ (이미지) 기저귀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상시 착용하는 만큼 라인업도 겹기저귀와 속기저귀로 이원화했고, 맞춤형 돌봄과 간병이 가능하도록 흡수 품질과 편안함, 직관적인 디자인 등을 적용했다.

겹기저귀로 출시된 ‘와이드매직’ 제품은 흡수와 편안함을 극대화했다. 부드러운 커버와 여러 번 재접착 가능한 테이프가 적용돼 있으며, 테이프 부착 부위에 별도의 위치 표시선을 두어 체형에 따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주머니에 쏙’... DJI 초소형 짐벌 카메라 韓 상륙

12CM 길이 ‘오즈모 포켓’ 출시 내장마이크로 생생한 장면 기록

중국 드론 업체 DJI가 초소형 짐벌 카메라 ‘오즈모 포켓’을 출시했다.

DJI는 6일 서울 마포구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오즈모 포켓을 공개하고 페이스트랙, 스토리 모드 등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오즈모 포켓은 약 12cm 길이로 DJI가 출시한 핸드헬드 짐벌 카메라 중 크기가 가장 작다.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작지만 성능은 강력하다. 이번 신제품에 적용된 기계식 3축 짐벌은 흔들



오즈모 포켓은 약 12cm 길이로 DJI가 출시한 핸드헬드 짐벌 카메라 중 크기가 가장 작다. 스마트폰 보다 작고 가벼워 주머니에 쏙 들어간다. /구서윤 기자

림을 보정하고 부드러운 카메라 움직임 구현해, 촬영자가 구도와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터리 지속 시간은 4K 30fps로

최대 2시간 촬영 가능하며, 1/2.3인치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 1200만 화소 사진과 최대 100Mbps 4K 60fps의 고품질 영상을 지원한다.

또한 본체에 2개의 내장 마이크와 소음 제거 알고리즘이 적용돼, 장면을 더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오즈모 포켓은 인텔리전트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부드러운 영상 촬영과 영화 같은 장면 연출이 가능하다.

본체에 장착된 1인치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연동 없이도 촬영 모드 전환, 설정 변경, 영상 다시 보기 등의 기능을 빠르

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피사체 자동추적 기능인 ‘액티브트랙’에서 한 단계 진화한 기술인 ‘페이스트랙’ 기능을 이용하면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한 후 피사체를 화면 중앙에 고정된 채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외에도 액티브트랙 타임랩스, 모션타임랩스, 1인칭 시점 모드, 3x3, 180° 파노라마 모드를 제공한다.

오즈모 포켓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미모(Mimo) 앱’도 출시됐다. 미모 앱은 다양한 인텔리전트 기능과 녹화 모드를 제공하며 손쉬운 영상 촬영과 편집은 물론 SNS 공유도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베일벗은 넷마블 야심작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넷마블은 기대작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을 6일 국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은 인기 PC 온라인게임 ‘블레이드&소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원작의 세계관과 콘텐트를 모바일로 재해석했다. 이 게임은 언리얼엔진4로 제작된 풀3D 그래픽을 바탕으로 고품질리티 시네마틱 연출과 메인 시나리오에 충실한 스토리, 경공 시

스템, 대전 게임급 전투액션 등 원작 감성을 담았다.

또 무림맹과 혼천교로 양분된 세력간 경쟁을 기반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오픈 필드 세력전’, 계층을 기반으로 갈등, 협동, 경쟁이 발생하는 ‘커뮤니티’ 등 차별화 요소를 더했다.

넷마블은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 출시를 기념해 출시 이벤트에 참여하면 희귀 장비를 비롯한 강화석, 은화 등 풍성한 아이템을 증정한다. 정해진

미션을 달성하면 한정판 고급 보패를 제공한다.

넷마블은 출시에 맞춰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공식 커뮤니티 ‘포럼’도 개설했다. 공식 커뮤니티에서는 게임 소식, CM 제작 콘텐츠, 게임 가이드 등 게임 정보를 비롯해 이용자들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문과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왼쪽부터) 백기봉 책임연구원, (취한화) 옥경석 대표이사, 이종성 책임연구원. /한화

한화 ‘올해의 연구원’ 백기봉·이종성 선정

한화는 ‘올해의 연구원’으로 추추력기 전문가인 백기봉 책임연구원과 유도무기 설계 전문가인 이종성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의 연구원상은 매년 사내 기술·연구 분야에서 업적과 역량이 우수한 연구원을 선발해 주는 시상이다.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과 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백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유도무기의 마지막 비행 단계에서 궤도를 수정하는 추추력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고,조기 전력화에도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연구원은 한화의 독자 모델 유도탄인 230mm급 다연장 천무의 선형 개발부터 설계, 제작 및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유진 기자

대우위니아, 대우전자와 손잡고 ‘프라우드 2019년형’ 출시

딤채 김치칸·독립냉각 시스템 적용 대우위니아가 프리미엄 냉장고 ‘프라우드’ 2019년형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프라우드는 대우위니아의 기술력을 총집해 만든 제품이다. 김치냉장고 딤채 기술을 적용한 김치칸과 독립냉각 시스템, 식재료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테이크아웃 케이스 등을 담았다.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내세웠다. 메탈

클래스를 적용하고, 냉장고 안에는 상단과 배면에 LED 라이팅을 도입했다. LED는 천천히 밝혀져 눈부심을 최소화했다.

특히 이번 프라우드는 대우위니아 식구가 된 대우전자 광주공장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유통망뿐 아니라 전체 공정을 함께 진행했다.

신형 프라우드는 801~834 l 크기 9개 모델로 출시된다. 출하가격은 160만~200만원대다. /김재우 기자 juk@



대우위니아는 대우전자와 협업해 만든 프리미엄 냉장고 ‘프라우드’ 2019년형을 출시했다. /대우위니아